



기념식 대신 현장 속으로 남구가 민선7기 3년차의 첫날을 '지역경제 살리기'로 시작했다. 7월 1일 남구청장과 주요 간부 및 직원들은 2주년 기념식을 대신해 이른 아침부터 남구의 지역화폐인 오륙도페이와 공공배달앱 홍보, 가맹점 모집 등의 캠페인을 펼쳤다. 이어 관내 주요 기업체들과 '포스트코로나 적극 대응 지역경제살리기 상생협약'도 체결했다.

‘지역경제 올인’ 남구 대대적 조직개편

일자리환경국 신설·담당관제 강화 등 경제 활성화 위해 환골탈테

민선7기 3년차를 맞아 남구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지원 ▲보육·돌봄 서비스 강화 등 구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 행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3국 1실 1담당관 20과 82팀'에서 '1실 4국 4담당관 20과 89팀'으로 조직을 포스트 코로나 실정에 맞게 개편했다. 특히 일자리환경국을 신설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쏟을 방침이다. 미래발전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기획전략실을 신설하고 기존 주민생활

국을 일자리환경국과 복지교육국으로 분리해 기능 중심으로 재편했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담당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기존의 소통감사담당관 외에 기획담당관, 재무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을 신설해 기획전략실 산하에 배치했다. 미래성장담당관은 남구의 미

래전략사업, 청년지원, 인구정책 등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또 여성정책,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성아동과를 신설했다. 이밖에 총출한 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아동학대예방·조사, 자활근로사업 등에 대한 기능 강화와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행정기능도 강화했다. 기획담당관 ☎607-4032

남구 지역화폐 ‘오륙도페이’ 8월 발행

주민 공모 통해 명칭 선정… 선불카드 우선 발행

남구가 추진하는 '지역화폐'의 공식 명칭이 '오륙도페이'로 정해졌다. 남구는 지역화폐 발행에 앞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진행한 결과 '오륙도페이'가 최종 선정됐다. 지난 6월 5일까지 12일간 1588건이

접수되었고 이 가운데 외부인사가 참여한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오륙도페이), 우수(오륙도사랑상품권), 장려(남구트램머니) 3건이 선정됐다. 남구 내에서만 유통되는 오륙도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지류권(종이) 두 종류로 제작되며 오는 8월에 선불카드

가 먼저 발행·유통되고 지류권은 9월께 발행된다.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는 부산에서 첫 사례로 7월 중순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오륙도페이 발행 규모는 72억7500만 원이며 할인율은 추후 결정된다. 남구는 곧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일자리경제과 ☎607-4476~7

남구, 연말 보도블럭 공사 안한다

대표적 '탁상행정' 지적… 조기집행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연말이면 관행적으로 되풀이 되는 보도블럭 공사가 남구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남구는 대표적 예산낭비 및 탁상행정 사례로 지적 받는 '연말 소모적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선언했다. 또한 보도블럭 공사 발주와 시기를 앞당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동시에 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올해 남구는 관내 총 23곳의 보도블럭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다년도 사업 2개를 제외한 21개 사업을 6월 이전 조기발주 등을 통해 최대한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보행안전에 위한 긴급 복구공사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해 남구청은 주민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도로공사 안내 입감판에

'연말 소비성 보도블럭 교체 공사를 전면 금지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기로 했다. 남구청장은 "그 동안 각종 공사를 연도 내 마무리해야 하는 관례 때문에 보도블럭 공사가 연말에 집중돼 '덜컾 덜컾 보도블럭을 바꾼다'는 주민 이해와 불편을 가중시켰다"면서 "올해부터 부득이 보행자의 안전보행에 지장이 되는 복구공사를 제외한 연말 보도블럭 공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건설과 ☎607-4692

오륙도·백운포체육공원 시설 등 공단 추진

관광·체육시설 책임 경영,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 기대… 7월 16일 주민공청회

오륙도·스포츠메카 백운포체육공원 시설을 중심으로 한 공단이 탄생한다. 남구가 기장군에 이어 부산에서는 2번째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남구는 지난 10년간 지역 내 공공시설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단 설립을 추진해 왔다. 새롭게 설립되는 남구시설관리공단은 남

구국민체육센터, 남구병상장, 백운포체육공원, 오륙도스카이워크, 해파랑길 관광안내소를 비롯해 모두 9개 시설(사업)이 포함된다. 전문경영기업 도입과 책임경영을 통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남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코로나19 예방방역, 폐자원재활용, 푸른남구조성 등 7개 분야이다.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 있는 남구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발결과는 7월 중 통보할 예정이며, 최종 선발자는 주 5일, 사업별로 1일 3~7시간 근무하게 된다. 참여자 모집공고는 정부의 3차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 ☎607-3691~2

■ 모바일 부산남구신문 신청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부산 남구청 채널에 접속되며, 채널 추가하면 모바일 신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해 부산 대표 관광지 오륙도와 스포츠메카로 불리는 백운포체육공원이 어떤 도약을 할지 벌써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구는 오는 7월 16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결과를 설명하고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기획담당관 ☎607-4034

“참 잘했다”는 말의 성찬보다 남구 발전에 늘 목이 탑니다

구청장 취임 2주년을 맞아 먼저 우리 남구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성원으로 구청장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고 남구를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이 시기 골목골목 방역 봉사 현장에서 함께 흘린 땀방울,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 남구주민 덕분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보여준 신속한 시민의식은 지난 6개월 코로나19가 남구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고 다양한 우수사례도 남겼습니다. 자체 개발한 남구 보건소 초스피드 위강스루 부스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에 이어 국내는 물론 해외에까지 코로나19 검사 장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의료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면서 대구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응원의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최초로 마스크 100만장을 수입해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기까지는 주민들의 자발적 봉사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구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부산소상공인긴급민생지원금, 여기에 골목상권 영수증·마스크 100만장 교환사업까지 주민 여러분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구경제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방역비상에 이어 지역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전 세계가 겪어 보지 못한 감염병과의 싸움으로 경제가 위축되고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 전시사상으로 규정하고 선제적 대응과 다양한 정책을 연구, 시행하고 있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입니다. 남구 역시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발 맞춰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정부 희망일자리 사업 적극 발굴로 보다 많은 일자리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남구경제인협회를 새롭게 출범해 양질의 구민 우선채용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최근 네이밍 작업을 마친 남구 지역화폐 '오륙도페이'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배달앱'도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내 자본 유출을 최소화하고 자금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트램 오륙도선 상용화, 우암해양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까지 남구 미래 먹거리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바꿔놓겠습니다. 남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대 지지 않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비를 맞는다는 마음으로 든든히 결을 지겠습니다. 7월, 남구의 희망을 담은 무거운 첫 발 내딛겠습니다. 주민의 든든한 친구, 남구청장 울림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 의하여 남구청장의 인물사진과 성명을 게재하지 못한 점 주민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남구 공공배달앱 10월부터 운영

수수료·광고료·가맹비 없어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부울경 최초… 코리아센터 재능기부로 무상 개발

오는 10월 수수료·광고비·가맹비가 없는 공공배달앱이 남구에서 운영된다. 이번 남구의 공공배달서비스 플랫폼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첫 공공배달앱이 될 전망이다.

남구는 지난 6월 29일 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이커머스 전문기업인 (주)코리아센터(대표 김기복)와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공배달앱 개발·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남구 공공배달앱'은 배달의민족 등 여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가맹점 가입비나 이용 수수료, 업체 노출을 위한 광고비 등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지

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남구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 오륙도페이 결제도 가능해 이용 주민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센터 측이 재능기부 형태로 배달앱 개발부터 유지보수 등 운영 및 관리, 가맹점 교육을 맡고 남구는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할인쿠폰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돕는다. 가맹업소는 남구에 위치하고 배달이 가능한 소상공인 업체로 일반·휴게음식점 등 4000곳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경제과 ☎607-4472